

제 1 교시

국어 영역

[수필]

(수능 특강 - 장유, 「곡목설」 // 고2, 2018.03)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웃에 있는 장생이란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여 산에 들어가 재목을 찾았으나, 뽕뽕이 심어진 나무들은 대부분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용도에 맞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산꼭대기에 한 그루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곧바로고 좌우에서 보아도 역시 곧기만 했다. 때문에 쓸 만한 좋은 재목으로 생각하고는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 뒤에서 살펴보니, 구부러져 있는 나무였다. 이에 장생은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했다.

“아, 나무 가운데 재목이 될 만한 것은 보면 쉽게 살필 수 있고, 고르면 쉽게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살폈어도 쓸모없는 재목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니 하물며 사람들이 외모를 그럴 듯하게 꾸미고 속마음을 깊게 숨기는 경우에 있어서라! 그 말을 들으면 그럴 듯하고 그 외모를 보면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하며 세세한 행동을 살펴보아도 삼가고 삼가니, 군자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큰 번고를 당하거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경우에 닥치고 나면 본심을 드러내야 하니,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나무가 자랄 때, 소나 염소에 의해 짓밟히거나 도끼나 자귀에 의해 찍히는 것도 없이 비나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밤낮으로 커가니, 쪽쪽 뿜어 곧게 자라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쓸모없는 재목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다지도 심하니, 하물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라! 물욕이 참된 성품을 어지럽히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괴이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가 이 일을 나에게 말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대의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네그러! 비록 그러하나 나 역시 할 말이 있네. 《서경》의 〈홍범〉 편에 오행을 논하면서 ‘나무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거나 바르다’고 하였네.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재목감으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속성으로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네. 하지만 공자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니, 정직하지 않고도 살아간다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그렇다면 사람이 고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도 역시 요행이라 할 수밖에 없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지만, 사람 가운데 곧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잘 다스려지는 치세일지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네. 자네도 큰 집을 한번 보게나. 그 집의 들보나

기둥이나 서까래나 각목을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한 경우에도 굽은 재목을 보지 못할 것이네. 이번에 또한 조정을 한번 보게나. 공경과 사대부로서 인끈을 차고 고관지위에 올라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치고 바른 도를 지닌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네. 이처럼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항상 불행하지만, 사람 가운데 비뚤어진 자는 늘 행복하기만 하다네. 옛말에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에 봉해진다.’고 하였으니, 이 말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굽은 나무보다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네.”

- 장유, 「곡목설」 -

(나)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우리 집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A] 처음의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러 할 때
어진 마음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썩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는 텃밭이 여드레같이로다

자손에게 물려줘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을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

[B] 밤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궂은지에만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 들어 흘깃볼것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돌아들게 되었는데
엊그제 날강도에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재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자꾸나

- 허전, 「고공가」 -

* 고공: 머슴

* 가멸게: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게.

* 호수: 공물과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

(다)

[C] 비가 새어 썩은 집을 그 누가 고쳐 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쌓을까
불한당 도적들 멀리 안 다니거늘

화살 찬 경비병들 그 누가 험씨 할까

[D] 크게 기운 집에 마노라* 혼자 앉아
분부를 뉘 들으며 논의를 뉘와 할까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니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러니와
돌이켜 헤아리니 마노라 탓이로다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건마는
그렇지만 세상 보기에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E] 집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집안 절로 일어나리라

- 이원익, 「고공담주인가」 -

*마노라: 상전, 마님, 임금 등 남녀를 두루 높이어 이르는 말.

42.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을 통해 과거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조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③ 가상의 사례를 들어 가치관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용 전개에 기반으로 삼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을 묘사하여 세월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43. (가)의 '장생'과 '나'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물(나무)로 인해 떠올린 생각	인간사와 연관 짓기	
장생	여러 번 보고도 그 구부러져 있음을 파악하지 못함.	사람을 여러 번 보고도 그 실체를 짐작하지 못함.	... ①
	본래 곧은 나무도 곧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사람도 있음.	... ②
나	나무의 속성에는 곧음과 구부러짐이 모두 포함됨.	인간의 천성에는 올바름과 바르지 않음이 모두 포함됨.	... ③
	곧은 나무는 큰 집을 이루는 재목으로 사용됨.	활줄처럼 곧은 사람은 세상에서 쓰이기 어려움.	... ④
	굽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목수에게라도 선택되기 어려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오름.	... 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화는 작가에 의해 기획되고 통제된다. 화자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 청자를 상정하지만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물들 간에 주고받는 발화로 구성된 대화가 작품 내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발화의 주고받음이 텍스트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텍스트 간의 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작가는 이와 같이 발화 내용 및 발화들 간의 관계를 주재하고 조정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를 구체화한다.

- ① (가)에서 '장생'의 '탄식'은 '나'에게 전달되면서 대화의 실마리가 된다.
- ② (가)에서 '나'는 '장생'의 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더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청자로 호명된 '고공'의 반응이 제시되지 않아 화자의 발화가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의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나)의 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공감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 ⑤ (다)는 이 작품이 (나)에 대한 화담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와 (다) 사이에는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집'이 채산을 축적하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C]: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설의적 표현을 통해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E]: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수능 특강 - 이상, 「산촌 여정」 // 고3, 2017.07)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별목 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즉도 하이 골이 울어 맹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즉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밋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좃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별목 정정: '정정'은 커다란 나무를 벨 때 울리는 '찌르렁' 소리를 한문구로 표현한 것임.

*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나)

- [A] [] 오늘, 북창(北窓)을 열어,
장거털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쌓지만
태고(太古)로부터 푸르러 온 []이 아니냐.
- [B] []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테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 [C] []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 [D] [] 그 품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嗚嗚)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 [E] []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석, 「거산호 II」 -

(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롱'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에 낚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우제(祈雨祭) 지내던 개굴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라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 객줏집 뒤편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夕刊)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鄭) 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하도록 '호가(호초갑지)'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베짖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둣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 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類)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聲樂)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루 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詩情)을 기초합니다.

그저께신문을 찢어버린
때물은 흰나비
봉선화는 아름다운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물-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石英質)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난계(寒暖計)*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엮은 지붕에 별빛이 내려쬐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엮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조(才操)로 광음(光陰)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채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줄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꾸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 이상, 「산촌 여정」 -

* MJB: 커피의 상표.

* 체전부: 우편배달부.

* 한난계: 온도계.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이 상징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명령형 문장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수산 1」은 겨울 장수산의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세상일에 초연한 옷걸 중의 모습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 속에서 번뇌하면서도 탈속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① 나무가 베어진다면 그 소리가 ‘찌르렁’ 하고 울릴 만큼 고요한 장수산에서 화자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군.
- ② 보름달이 뜬 ‘한밤’에 하얗게 눈 덮인 장수산은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③ 승부에서 모두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옷걸 중’의 초연한 모습은 세속과 절연된 장수산의 이미지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군.
- ④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갈등하고 있음을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표현하고 있군.
- ⑤ ‘장수산 속 겨울 한밤’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번뇌를 잊고 ‘울연히’ 시름을 건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30. (나)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사람’과 ‘산’의 상반된 속성을 대비하여 ‘복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앓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산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너그러’우며 ‘자랑 많’고 ‘겸허한’ 산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를 통해 산에 대하여 화자가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배우네’를 통해 산이 화자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비유하여, 이승에서와 달리 저승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31. (나)의 [산]과 (다)의 [도회]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이상적 삶의 공간이다.
- ②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③ ‘산’은 화자에게 현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도회’는 ‘나’에게 미래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
- ④ ‘산’은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이고, ‘도회’는 ‘나’에게 격정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⑤ ‘산’은 화자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도회’는 ‘나’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견고하게 한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산촌 여정」에서 작가는 낯선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삶에 익숙한 작가는 산촌의 자연적이고 향토적인 사물을 도시인의 관점에서 형상화하거나,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언어를 통해 산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① ㉠: 산촌에서 보는 짐승들을 ‘동물원’과 관련된 도시적 경험과 연결하며, 산촌에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석유 등잔’의 ‘내음새’를 도시에서 접했던 ‘석간’ 신문의 냄새에 비유하며, 자신의 소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 ③ ㉢: 베짖이 울음소리를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가위 소리’에 비유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도시의 경험과 관련 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 ‘가을’이 오는 것을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으로 표현하며, 추상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꿈속에서 본 도회 소녀를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에 비유하며, 산촌에서 갖게 된 이국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시나리오]

(수능 특강 - 이강백, 「알」 // 고1, 2015.09)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수시로 공룡의 침입을 받는 나라에서 시민 대표들이 모여 왕을 선출한다. 어느 날 박물관장이 큰 알을 들고 나타나 내일 알에서 공룡을 물리칠 왕이 깨어날 것이라고 전한다. 왕은 자결을 하고, 새롭게 왕이 된 박물관장은 알의 실체를 숨기고 시민들을 길들인다.

시민들: (또 다시 괴로워한다.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이 반복된다. 마침내 그들은 수십 차례 고문을 당한 사람들처럼 맥이 빠져 비굴할 정도로 유순해진다.)

박물관장: ㉠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것을 고분고분 들지 않으면 어느 때든 이와 같은 주문을 외우겠다. 알겠느냐?

시민들: 네, 폐하.

박물관장: 아니야, 네 놈들이 길들어지려면 아직 멀었어. (다시 시작한다.)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셨었다!

시민들: (㉡ 기진맥진한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 신음 소릴 지른다.)

시민 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땅에 엎드리어 신왕에게 기어와 그의 발에 공손히 입을 맞추며) 우리들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폐하, 우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그 알 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은 기꺼이 폐하를 섬기겠습니다.

박물관장: 임금의 자리란 왕관이나 칭호로써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의 복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넌 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시민 라: 위대한 임금님이었습니다.

박물관장: 그러면 그것을 믿어라.

시민 라: 그러나 진실을 고백하자면 혹시 공룡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품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장: 공룡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시민 라: 네.

박물관장: 그럼 그것을 믿어라.

시민 가: 폐하, 부디 둘 중에 하나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박물관장: 알 속엔 무엇이 들었는지 정말 알고 싶은가?

시민 라: 그렇습니다.

박물관장: (상자 속에서 칼을 꺼내 시민 라의 앞에 던져 주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름을 하자. 그 칼은 내가 전왕을 겨누었던 칼이다. 이번에는 내가 나를 찌러 보라. 나는 결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임금이다. 너희들에게 이를 데 없는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칼을 쥐고 나를 찌러라. 자, 어서 찌러. 내가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찌르게 된다.

시민 라: (칼을 쥐고 박물관장에게 다가간다. 그의 가슴에 칼을 대었다가 힘없이 툭 떨어뜨린다.) 당신을 죽이면 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들의 고뇌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A] **박물관장:** (떨어진 칼을 주워 들고) 이번엔 내가 너를 찌러 차려다.

시민 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과의 노름에서 생명을 걸어 있었지 않았던가요?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나 진실을 들려주십시오.

박물관장: (칼을 가슴에 대고 귀에 나직하게 속삭인다.)

㉢ 그럼 네게만 말해 주마. 그 알은 한 줌의 석회로써 만든 것이다. 지금 그것은 상자 속에 부서져 있다. (들칼로 시민 라를 찌른다.) 이젠 알았는가? 너의 괴로워하던 양심은 구제되었는가? 이 바보 같은 놈의 시체를 치워라. 한 줌의 석회에 자기 목숨을 판 놈이다.

시민들: 한 줌의 석회라뇨?

박물관장: 시청 광장으로 끌고 가서 장례식이나 잘 치러 주이라. 이왕이면 그의 소원이었던 석회로 둥그런 알을 만들어 그 속에 담아 묻어라.

시민들: 네, 폐하! (시체의 다리를 잡는다.)

박물관장: 너희들, 나와 내기를 할까? 그 시체를 시청 광장까지 끌고 가는데 이십오 분 걸릴 것 같다. 너희들은?

시민들: (㉣ 서로 상의하더니) 저희들은 십팔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장: 그래? ㉤ (상자 속에서 시계를 꺼내든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재기로 한다.

시민들: (시체를 끌고 달려 나간다.)

박물관장: 미친놈들이 죽은 개 끌고 가듯 하는군.

(시민 나, 등장)

시민 나: 폐하! 아뢰을 말씀이 있습니다.

박물관장: 왜? (귀찮다는 듯이...) 머?

시민 나: 숲속에서 알을 하나 주웠는데, 알이 엄청 커요. 아무래도 위대한 왕이 나올 알 같습니다.

박물관장: 뭐야? 그럴 리가 없어.

시민 나: 진짜라구요, 색깔이 요상해요.

박물관장: 으...악...!

- 이강백, 「알」 -

43. 윗글을 연극으로 공연하려고 할 때, ㉠~㉤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박물관장'은 시민을 억누르는 권력자의 모습에 어울리는 커다란 왕관을 쓰게 해야겠어.
- ② ㉡: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명을 켜다 켜다 반복해야겠어.
- ③ ㉢: '시민 라'에게만 들리듯이 말하는 상황이지만 관객에게 대사가 전달될 수 있게 성량을 조절하도록 해야겠어.
- ④ ㉣: 애도하는 시민들의 심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울먹이며 연기하도록 해야겠어.
- ⑤ ㉤: 시민들이 긴장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계 돌아가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어야겠어.

44. [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박물관장'이 주술로 만든 것이다.
- ② '시민 라'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박물관장'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 ④ 시민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사물이다.
- ⑤ 시민들이 나라를 침입하는 공룡에게 대적하는 수단이다.

45.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 설화에는 금기 모티프와 관련한 내용을 소재로 한 것이 많이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대표적이다. 신라 제48대 경문왕 때 의관을 만드는 복두장(幞頭匠)은 홀로 아는 **비밀**을 죽음이 두려워 평생 말하지 않다가 죽게 될 때 도림사(道林寺)의 대밭에 들어가 대나무에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질렀다. 그 후 바람이 불 때면 대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서 순식간에 그 소문이 도성에 퍼져 나갔다. 임금은 이것을 싫어하여 대나무를 베어 버리고 그곳에 산수유를 심었는데 그 후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길다!"라고 하는 소리로 변했다고 한다.

- ① '복두장'은 '시민 라'와 달리, 죽는 것을 두려워하였군.
- ② <보기>는 [A]와 달리, 금기시 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군.
- ③ [A]의 '진실'과 <보기>의 '비밀'은 권력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군.
- ④ '시민 라'는 '복두장'과는 달리, 진실을 알고 난 직후 죽음을 맞이했군.
- ⑤ <보기>의 '임금'은 '박물관장'과는 달리, 괴로워하는 '복두장'을 구제했군.

(수능 특강 - 김영현·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 고1, 2017.03)

[41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내용] 노비 소이는 한자를 몰라 이도(세종)가 심은에게 보낸 비밀 명령(밀지)이 바뀐 것을 눈치 채지 못한다. 이로 인해 심은과 소이의 가족은 모두 죽게 되고, 소이는 총격으로 실어증에 걸린다. 그 후 소이는 궁궐 나인이 되어 한자를 익히게 된다. 한편 이도는 농민들을 위해 '농사직설'을 편찬하지만, 한자를 몰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목격한다.

#23. 이도의 집무실(밤, 회상)

어두운 얼굴로 터덜터덜 들어오는 이도. 탁자 위에 그사이 늘어난 작은 모형들이 있다. 자격루, 혼천의, 향약집성방, 양부일구(이름 모두 자막 표기) 등등을 보는 이도.

이도: (스스로 비웃듯이 보며) 또..... 지랄을 했던 말인가...... 헛지랄......

하고는 자격루를 들어 보인다. 무표정하게 내딛지는 이도. 놀라는 근지, 목야, 덕금. 이도, 하나씩 때려 부순다. 무표정하게. '농사직설'을 집어 찢으려는데, 그때 들어온 정인지가 몹으로 말한다.

정인지: (감히 몹으로 안으며) 전하! 아니 되웁니다!

이도: (막무가내로 찢으려는데)

정인지: 전하, 실패가 아니웁니다! 농사직설이 보급되어, 실제로 수확량이 늘고 백성들의 살림이 풍요로워지고 있지 않사옵니까!

이도: (확 노려보며) 네깃 놈도 정치가랍시고, 숲만 보는 것이냐? 나무는 보지 않냐? 풍성한 숲 안에 한 그루 한 그루 썩어 가는 나무들은 상관없단 말이냐!

정인지: (아무 말 못하는데)

이도, 정인지를 밀치고 확 나가려는데, 구석에 서 있는 소이가 보인다. 앞에서 별별 떨고 있는 궁녀들과 달리 차가운 무표정의 소이.

이도: (그런 소이에게 시선 고정한 채) 너희들 모두 나가 있거라.

정인지, 불안하게 보다가 근지, 목야, 덕금을 데리고 나간다. 소이,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데.

이도: 어찌 그리 보는 것이야.

소이: (무표정하게 보고)

이도: (소이에게 한 발짝씩 다가가며) 그 긴 세월 조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은 얼마나 단단하기에 그리 열리지 않는 것이냐.

소이: (역시 반응 없이 무표정하게 본다)

이도: 이해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다. 이 나라의 임금인 내가! 너에게 다 자세히 설명했다.

이도: 너희들을 살리려 밀지를 보냈지만, 밀지가 바뀌었다

고! 내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난 누구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할 만큼 했다고! 현대 바뀌지 않아. 너도,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

소이:

이도: 내가 이리된 것이 온전히 나의 책임이냐? 내가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 것도 온전히 내 책임이냐? 너의 남은 삶이 모두 내 책임인 것이냐? 아니다!

소이:

이도: (먹살을 잡으며) 넌 내 인생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세 살배기 아기처럼 세상을 향해 때를 쓰고 있을 뿐이야! 아니냐? 말을 해 봐! 말을!

소이: (무표정하게)

이도: (보다가 체념한 듯) 너도..... 말..... 못하는 게 벼슬이냐? 좋겠구나.....

하고 돌아서 나가려는데, 소이가 탁자에 있던 붓을 들어 종이에 한자로 무엇인가를 쓴다. 나가다 말고 소이가 쓴 것을 읽어 보는 이도. 자막 '아기라면 키우셔야지요.' 놀라서 소이와 종이를 번갈아 보는 이도에서 cut*.

#24. 글자방(밤, 회상)

글자 없는 글자방. 세필 붓을 광 놓는 이도.

이도: 앞으로 이걸로 네 의견을 적거라.

소이: (이도 보다가 세필 붓 보는데)

이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네 생각을 적어 보거라.

소이: (보면)

이도: (약간 긴장한 채) 글자를..... 만들려 한다.

소이: (보면)

이도: 쉬운 글자..... 너무나 쉬운 글자...... 어떠하냐?

소이: (약간 놀라고)

이도: 아기를..... 키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소이:

이도: (초조한 듯 설명을 덧붙이며) 제아무리 명칭하다 해도,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 그런 걸 만들려 한다. 어찌 생각하느냐?

소이 드디어, 붓을 든다. 그리고 수첩에 뭐가 쓰는 소이. '是(옳을 시).' ㉠ 결연한 표정의 이도.

- 김영현·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

* cut: 장면을 중지한다는 의미.

41. ㉠의 연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의 불안감이 잘 드러나도록 화면이 흔들리는 효과를 주어야겠어.
- ② 굳은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이도 역을 맡은 배우의 얼굴을 근접해서 찍어야겠어.
- ③ 이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드러나도록 여러 인물의 모습을 삽입해야겠어.
- ④ 충격을 받은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이도 역을 맡은 배우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찍어야겠어.
- ⑤ 내면의 갈등을 숨기고 있는 이도의 심리가 잘 드러나도록 배우의 목소리를 내레이션으로 넣어야겠어.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세종(이도)이 한글을 창제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더해져 있다. 이러한 허구적 상상력의 하나가 한글 창제의 과정에서 세종이 노비 출신의 나인 '소이'를 비롯한 하위 계층과도 소통하였다는 설정이다. 작가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백성의 입장에서 고뇌하고 좌절한 끝에 한글을 창제하게 되는 인간 이도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① '농사직설'이 한자로 찍어져 백성들에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도가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나무는 보지 않아?'라는 이도의 말은 자신에 대한 당대 정치가들의 비판으로 인해 좌절하는 이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아기'의 함축적 의미를 활용하여 백성을 '때를 쓰'는 '아기'로 여기는 이도의 인식과 '아기라면 키우셔야지요.'라는 소이의 글을 연결하고 있군.
- ④ 이도가 소이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글자방'은 한글 창제 과정에서 이도가 소이와 같은 하위 계층과 소통하는 공간이군.

(수능 완성 - 이강백, 「영월행 일기」 // 고2, 2013.09 B형)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당전은 고서적을 수집,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조 3년 신숙주의 하인이 쓴 영월행 일기 라는 책을 김시향에게서 구입한다. 그런데 영월행 일기 를 판 김시향이 책을 돌려 달라고 찾아오자 조당전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책의 재현을 제안한다. 그래서 조당전은 단종을 살피러 가는 신숙주의 하인 역, 김시향은 한명희의 여중 역을 맡게 된다.

제3장

(서재 가운데를 차지했던 원탁과 의자들은 구석으로 옮겨져 있다. 조당전은 넓어진 공간에서 당나귀 모형을 조립하는 중이다. 당나귀 몸뚱이에, 머리와 꼬리, 네 다리를 끼워 넣는다. 당나귀 다리에는 끌고 다니기에 편리한 바퀴를 부착한다.)

조당전 이 당나귀를 타세요.

김시향 제가……타요?

조당전 네.

김시향 왜 당나귀를 타야 하죠?

조당전 부인께서 다녀가신 후 나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는……결심했지요. 이 책을 부인의 남편께 되돌려 드리기로요.

김시향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당전 그러나 이 책의 형태만을 되돌려 드리렵니다.

김시향 형태만이라뇨?

조당전 내용은 우리가 갖는 것이죠.

김시향 무슨 말씀이신지……?

(조당전, 문갑 위에 있는 녹음기의 작동 버튼을 누른다. ㉠ “꼬끼오~”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

조당전 어서 당나귀에 올라타요. 그럼 부인과 나는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김시향, 머뭇거릴 뿐 타지 않는다. 조당전은 김시향을 강제로 부축해서 당나귀에 올려 태운다.)

조당전 새벽닭이 울었잖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김시향 선생님도 타세요!

조당전 둘이 타면 무거워서 당나귀는 달리지 못해!

(조당전, 바퀴 달린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서 달리기 시작한다.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진다.)

조당전 8백 리 길이 모두 불거러야.

김시향 제 눈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당전 마음의 눈으로 봐.

김시향 (침묵한다.)

조당전 옛날 어릴 적 기억나? 따뜻한 봄이 되면 아이들은 참 좋아했었지. 풀과 나무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었어. 추운 겨울 동안 집안에만 웅크리고있다가 밖에 나와서 보게 되는 그 환한 광경, 마치 봉사가 눈을 뜬 순간처럼 신기하고 놀라웠지. 아, 저기 나비 좀 봐!

김시향 ㉡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노랑나비에요? 흰나비에

요?

조당전 왜 눈은 가리고 묻지?

김시향 옛날 어른들이 말씀했었죠. 그해 처음 노랑나비를 보면 운이 좋고, 흰나비를 보면 운이 나쁘대요.

조당전 그렇다면 가만히 눈을 떠봐.

김시향 (가렸던 손을 떼고 허공을 바라본다.) ㉢ 어머니, 노랑나비네! 한 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도 노랑나비! 저기도 노랑나비! 온통 노랑나비 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조당전 임자, 처음엔 내키지 않더니 이제 흥이 났군.

김시향 선생님은요, 선생님도 흥이 나셨으면서!

조당전 날 선생이라고 부르면 안 돼.

김시향 그럼 어떻게 부르죠?

조당전 임자라 불러.

김시향 임자……?

조당전 당신이라 부르든가.

김시향 (웃으며) 호호호, 당신…….

조당전 이 놈 당나귀도 신이 난 모양이야. 연신 코를 별름거리면서 꼬리를 흔들어 대는군.

(조당전, 끌고 가던 당나귀를 멈춰 세운다.)

조당전 두 갈래 길인데…….

김시향 영월은 어느 쪽이죠?

조당전 동쪽이야, 강원도는.

<중 략>

(조당전과 김시향 나란히 바짝 붙어서 걸어간다. 조당전이 다른 방으로 통하는 미닫이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조당전 여기, 숲속에 조그만 기와집이 있군.

김시향 기와집요……?

조당전 아무도 안 계시느냐고 여쭙어라!

김시향 이상해요…… 인기척이 없어요…….

조당전 붓질 장수 왔노라고 여쭙어라!

김시향 아무 응답이 없군요.

조당전 우리 함께 저 대문을 열어 보자구.

(조당전과 김시향,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미닫이문을 양쪽으로 밀어 젖힌다. 그러자 그 뒤의 공간이 보인다. ㉣ 하얀 석고 덩어리처럼 무표정한 얼굴의 소년 형상이 의자 위에 앉아 있다.)

김시향 누군가 있어요…….

조당전 그래……쫓겨난……어린 임금이야…….

김시향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조당전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어…… 아무 표정도…….

(㉤ 조당전과 김시향은 뒷걸음으로 물러선다. 무대조명, 서서히 암전한다.)

- 이강백, 「영월행 일기」 -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찾아가고 있다.
- ②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 ③ 갈등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파국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무대 밖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윗글의 공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 조당전의 집, ㉡ 영월로 가는 길, ㉢ 영월(기와집)이다. 그러나 실제 이 세 공간은같은 공간으로 조당전의 집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조당전의 집이 영월을 향한 길이 되기도 하고 영월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들도 현실의 인물이면서 상상 속의 인물이 되기도 한다.

- ① ㉠에서 ㉡로의 이동은 매개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② ㉡의 인물은 재현 상황에 점차 몰입해가고 있다.
- ③ ㉠과 ㉢는 현실의 인물들이 상상한 공간이다.
- ④ ㉢에 있는 상상 속 인물들은 '미닫이문'을 통해 상상의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으로 돌아온다.
- ⑤ ㉠→㉡→㉢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물리적 공간은 모두 ㉠이다.

40. 윗글을 공연한다고 할 때, ㉠~㉣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음향효과를 사용하여 재촉하는 상황과 연결시켜야겠어.
- ② ㉡: 배우에게 낙담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표정을 짓게 해야겠어.
- ③ ㉢: 무대 배경에 영상을 이용하여 나비 떼를 표현함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어.
- ④ ㉣: 표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을 어둡게 하고, 조명을 사용해 얼굴만을 비추도록 해야겠어.
- ⑤ ㉣: 음악을 사용하여 관객들도 충격적인 느낌을 받도록 해야겠어.

(수능 특강 - 오영진, 「정직한 사기한」 // 고2, 2016.09)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위조지폐를 만드는 가족(사장, 사원 갑, 사원 을, 사원 병)이 빌딩에 유명 회사를 차려 놓고, 누명을 써서 전과자가 된 청년을 사원으로 채용한다. 청년은 한 달 치 월급으로 받은 위조지폐로 양복을 구입하다 사복형사에게 잡혀 사무실로 끌려오게 된다.

청년 : 오! 사장님!
 사복 : 선생이 간편무역 사장입니까?
 청년 :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장 : 잘못 아시고 오신 모양이군.
 사원 갑 : 용산서에서 오셨어요.
 사장 : 나한테? 무슨 일로?
 사복 : 이 남자가 선생 회사에 취직했다는댁쇼.
 사장 : 천만에! 대체 누구입니까? 이 남자는 난 생면부지일시다.
 청년 : 아닙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 사원이예요, 사장님. [A]
 사복 : (뺨을 갈기며) 인마, 아직도 거짓말이야, 응?
 청년 : 아네요. 나으리는 몰라요, 나으린. 아씨, 아씨! 아씨가 아십니다. 회계과장이 한 달 월급을 선불해 주시고, 양복을 사 입으라고 달려 지폐를 주셨어요.
 사복 : 인마, 떠들지 마라. 글썽 이 미련한 친구가 누굴 속여 보겠다고 백 불짜리 지폐를 위조해 가지고 백주에 서울 네거리를 횡행합니다그려. 헛헛..... 그래서 월급을 받았다? (머리를 갈기며) 인마, 뭐 양복을 짓겠다고? 가짜 돈을 찍으려면 남이 봐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진짜 백 불짜린 구경도 못했을 자식이. 가자, 인마. 실례 많았습니다. [B]
 사장 : 원 천만예요.
 청년 : 사장님, 나으리! 제겐 아무 죄도 없어요. 제발, 미련은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이구 그 지긋지긋한 감옥살일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이러시길. 사장님! 구두도 사서 친구 양복도 새로 맞추고 추천서도 일없고 신원보증도 일없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장님! 아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씨를. 아씨는 거짓말을 안 하실 겁니다. 아씨! 아씨!
 사복 : 인마, 떠들지 마라, 가자! (역지로 끌고 나간다.)
 청년 : (복도로 해서 오른쪽으로 끌려가며) 사장님! 왜 제게 취직자리를 줬어요? 취직만 안 했더라면 감옥에도 안 가고..... 감옥엘, 감옥엘..... 저 사장님..... 너무합니다. 사장님! [C]
 사장과 사원 갑은 사장실로, 사원 정은 복도로 가서 청년이 간 뒤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사장 : 결국 또 실패지. 이번엔 얼마나 찍었느냐?

사원 갑: 시험 삼아 3백 장만 찍었어요.
사장: 흥, 3만 불이로구나. (지갑에서 진짜를 꺼내 대조하며) 어디가 다른가 좀 자세히 보아라. [D]
사원 갑: 도안이 좀 이상하다 했더니만.
사원 병: 도안이 아네요, 형님. 인쇄 잉크가 달라요.
사원 을: 잉크가 어떻다고 그래, 종이가 틀리는걸 뭐.
사원 갑: 종이야 할 수 있지. 미국을 간다고 같은 종이를 사겠니.
사원 병: 아네요, 잉크예요. [E]
사원 을: 종이야.
사원 갑: 도안이 틀렸어.
사원 병: 잉크가 아니라니깐.
사원 을: 잉크가 어쨌단 말야. 네가 도안을 잘못 그려놓곤.
사원 병: 도안이 어디가 틀렸어!
사장: 애들아, 떠들지 마라. 그 미련한 녀석 때문에 단단히 손해 봤다.
사원 병: 참 그 자식 때문이야.
사원 갑: 첫눈에도 자식이 좀 모자라는 것 같더니만.
 - 오영진, 「정직한 사기한」 -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복'은 '청년'보다는 '사장'의 말을 신뢰한다.
- ② '청년'은 자신의 결백함을 '아씨'가 밝혀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③ '사장'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복' 앞에서 '청년'을 모른 채한다.
- ④ '사장'은 잡혀 온 '청년'을 통해 지폐를 위조하는 데 실패했음을 확인한다.
- ⑤ '사원 갑'과 '사원 병'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사복'에게 붙잡힌 '청년'을 동정한다.

45. [A]~[E]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단막극인 이 작품은 무대 공간이 회사 안으로 제한된다. 무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로 이야기가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무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무대 밖에 서 일어난 사건이 오직 인물의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 ① [A]: 사복이 청년의 뺨을 때리고 의견을 묵살하는 일
- ② [B]: 청년이 백 불짜리 위조지폐로 양복을 구매하려는 일
- ③ [C]: 사복이 청년을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일
- ④ [D]: 사장이 진짜 지폐를 꺼내 사원들에게 대조시키는 일
- ⑤ [E]: 사원들이 위조지폐의 조잡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

국평일 배포 자료 EBS 수필 · 시나리오

by 교육청 정답

고2, 2018. 03 「곡목설」 42. ④ 43. ③ 44. ④ 45. ②

고3, 2017. 07 「산촌 여정」 28. ① 29. ② 30. ④ 31. ④ 32. ⑤

고1, 2015. 09 「알」 43. ④ 44. ③ 45. ⑤

고1, 2017. 03 「뿌리 깊은 나무」 41. ② 42. ②

고2, 2013. 09 B형 「영월행 일기」 38. ② 39. ④ 40. ②

고2, 2016. 09 「정직한 사기한」 44. ⑤ 45. ②